

문화예술기관(단체) 정보 제공 현황

[컨소시움의 경우 문화예술기관(단체) 연락처 재단에 문의(064-800-9177)]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분야	세부분야	인력현황	주요 활동내용
(사)한국아동 국악교육협회 제주지부	송정희	전통예술	국악, 풍물, 난타, 탈춤, 민요 등	대표 1명 주강사 3명 보조강사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제주설화와 함께하는 소리극여행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오날이" - 2017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 "덩덕쿵 신명나는 사물놀이" - 꿈다락토요문화학교 2017 상상톡톡 소리극여행 "오름이의 생명꽃" - 꿈다락토요문화학교 2018 상상톡톡 탈극 "하늘땅 열린 이야기" - 2018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 "얼수! 흥겹게 놀락 樂" - 2018 배움터 지원사업 탈극 "오름이의 생명꽃"
					단체소개
					<p>본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제주지부'의 이름에 맞게 활동하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 우선 우리 민족의 음악인 '국악'을 기반으로 하여 주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에 소속된 강사들은 모두 타악, 성악, 무용, 마당극 등의 분야 모두 소홀히 하지 않고 꾸준히 연구하고 있으며 각자의 기량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있다.</p> <p>'국악'의 보급 대상으로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그 수준에 맞춰 다양한 '국악' 내용을 재미있고 쉽게 가르치기 위해 교육 내용을 다양화하고 세분화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제주문화, 제주설화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창작하고 있다.</p> <p>본 단체 소속 강사들은 제주민속, 타악, 성악, 무용 및 극 관련 활동을 오랫동안 해 왔던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여러 분야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강사들 간의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하여 '제주민요+무용+극'을 활용한 무용극 프로그램 창작과 '제주설화+민요+무용+극+사물놀이'를 활용한 프로그램 창작 등 다양한 통합 수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활발히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p>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분야	세부분야	인력현황	주요 활동내용
예술융합창작소 재주나비	신윤정	예술융합	공예/음악 /미술/ 무용/인문	대표 1명 주강사 9명 보조강사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라진 도깨비 탈을 찾아 떠나는 탐라여행" - '18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글로벌 해외탐방 <A-round>선발 - <A-round>사업기획발표 "소득의 재분배를 가능성의 재분배로 만들어 주는 예술가의 공간" 연구
					단체소개
					<p>"예술적 능력을 갖춘 장애인을 어떻게 표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p> <p>예술 강사 기반의 비영리 단체 예술융합창작소 재주나비는 이런 고민 점을 바탕으로 장애인예술이 사회에 '통합'되고자 했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예술 분야에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완전히 '융합'되는 것을 추구하며 장애 예술인이 비장애 예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다. 두 번째는 장애인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소통이 가능한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 예술가들이 작품을 통해 소득을 창출 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지속적인 콘텐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p>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분야	세부분야	인력현황	주요 활동내용
물드리네	김미선	시각	공예	대표 1명 주강사 1명 보조강사 1명	- '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빛의 세상으로"
	단체소개				
	<p>2005년 제주지역의 색을 담아내는 천연염색 공방으로 시작하여 학생, 일반인을 위한 천연염색 체험과 천연염색의 올바른 보급을 위해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p> <p>쪽, 홍화, 황련, 오배자, 소목 등 전통적으로 해왔던 염색을 재현하는 일 뿐만 아니라 제주꿏감, 쑥, 조릿대, 유채, 억새, 굴염색 등 제주지역의 특색을 담아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으며 염료식물인 쪽을 직접 재배하여 감과 쪽의 복합염등을 통해 감염색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p>				